

제 63 호

연중 제 5 주일

1974. 2. 10

#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목 상】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한 상 갑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마리도 못잡았 습니다.”(루가 5:5)

오늘 우리 모두가 듣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는 겐베사 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쳤으나 텅탕을 친 시몬 베 드로가 “깊은데로 저어가서 모두를 그물을 쳐 고기를 잡 으시오” 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고기잡이가 본업인 시몬 베드로가, 그물 한번 쳐본 일 이 없었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명한 이 대화에서 우리 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불신(不信)의 그것이라고 말 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몬 베드로의 대답 은 정말로 생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말로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지는 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천진난만한 그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갈(恐喝)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그 들끼리의 대화에 걸쭉하면 것처럼 끔찍한 말을 사용하는 오늘날입니다. 어른들의 말씀이, 교사의 가르침이 제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오늘날입니다. 이웃과의 대화에 항상 불안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숨기고 사는 오늘날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그것입니다. 하느님과 만남에서 신앙이 싹트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정과 사랑이 열매 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을 열어 보이시는 하느님의 사랑 에 응답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당신의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시어 당신을 열어 보이신 사랑에 대답하여 하느님 을 믿고 사랑함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 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느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듣는 오늘, 우 리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불신의 뿌리를 뽑아 없앨 수 있는 길은 우리 이웃에게 참으로 거짓없이 나를 열어 보이고, 또 그렇게 열어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받아 드리는 것입니 다. 우리의 이웃과 진정으로 만날 때, 어떻게 이 사회에 불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처럼 열어 보이고, 시몬 베드로 처럼 응답 합시다.

(본지 편집인)

### \*이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임당송** 어서 와 얼드려서 조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세,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 (2)말씀의전례

□**제1독서** (이사 58: 7-10, 경향잡지 2월호)

여기 대령하였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가송** ◎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노래 하오리다.

당신 오른 손으로 나를 위하여 주시나이다. 날 위해 시작하신 일, 주는 마치시리다. 주여 너그러우심이 영원하 시오니 순수 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 ◎

□**제2독서** (고린트전서 15: 1-11, 성서 P 398).

우리가 전하는 것과 너희가 믿는 것은 같은 것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를 사 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 5: 1-11, 성서 P 135)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몬 베드로처럼 당신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소서. ◎주여...

2. 주여, 우리들 사이의 불신은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는데에 있습니다. 굳어버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

3. 가난한 이의 위로이신 주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남을 이해해야 이해 받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주...◎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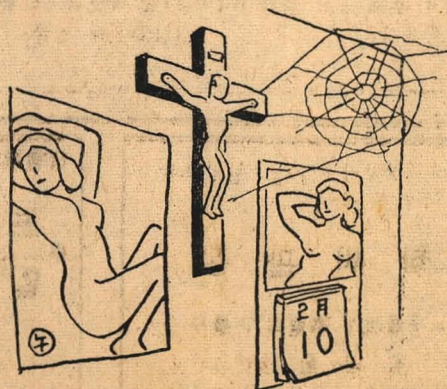
#### (3)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야훼께 감사하라, 그 자비 하심을 중생에 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애타는 영혼을 흐뭇하게 하시 고 끊임주린 영혼을 복으로 채우셨도다.

#### (4)폐회식

### \* 숲 정 이 산책 \*



이렇게 모신 가정은 없겠지요?



### 주일 헌금의 유래



박진량 신부

「이제는 주일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하  
 가? 모처럼 신성한 곳이라고 해서 성당엔 한 번 갔더  
 는 돈을 내라고 하니깐 거북해서 혼났다」는 말을 들은적  
 이 있다. 또 「교회 운영상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때, 다  
 른 방법으로 거둬들일 일이지, 하필이면 거룩한 주일 미  
 사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나마 즐지어 가지고  
 내도록 하는 저의(抵意)가 도대체 뭐냐」고 나무라는 신  
 자도 더러 있는 것 같다.

글쎄, 주일 미사때 예물봉헌하는 풍습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성 유스티노(2세기에 살던교부)의 저서에 의하면 「주  
 일 집회 때에는 으레 신자들이 일정한 기도후에 빵과 포  
 도주, 그리고 물을 회중의 장(長)에게 가져오고 그 장(長)  
 은 감사의 기도를 바쳤다. 그러면 그 기도 끝에 모든  
 회중이 일제히 “아멘”이라고 크게 외쳤다 고 한다.

또 「부유한 사람들과 너그러운 사람들은 자진해서 자  
 기들이 바치고 싶은 것들을 바쳤다. 그러면 그것들을 모  
 아서 회중의 장(長)이 고아들이나 과부들, 병고에 시달  
 ( 궁핍한 사람들에게 부조해 주었다」고 한다 .

또 3세기 초에 「히벨리토」라는 교부는 미사 중에 두차  
 례에 걸쳐 예물봉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예물을 어떻게 바쳤는지는 분명치 않다. 4세  
 기에 이르러,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예물봉헌이  
 있던 기록이 남아있다. 아프리카와 밀라노, 로마 등지에서  
 성찬기도 전에 신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직접 들고 행렬을  
 지어 제대 앞(Sanctuarium)까지 가지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성아우구스띠노는 이 때에 신자들이 부르던 성  
 영으로 된 노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성 암브로시오  
 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11세기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미사 때에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빵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신  
 자들이 바치는 빵을 미사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빵을 봉헌  
 하던 풍습이 차츰 사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교회는 오늘  
 날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빵(제병)을 특별히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다. (다음호에 계속)

### ◆노송동 성당 신축 공사◆

### 우리 성당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성당을 우리의 힘으로 세우자는 노송동 교우들  
 의 염원이 열매를 맺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참여하지 않  
 은 신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노송동 천주교회 사도회 아뢰.

- ◎ 노 마리아(선우)여사, 성종 구입을 위해서 30만원  
기증
- ◎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분, 5만원과 4만원을 기증
- ◎ 남노송동 128,650원, 중노 1가동 168,500원  
중노 2가동 405,000원 인후동 1가 94,800원  
우아동 41,000원 누계 537,950원

#### 남노송동

조해형(5만원), 장양녀(2만5천원), 김정생(2만1천원)  
 이병학(2만원), 박귀남, 박양남, 소귀례, 이순화(각 1만  
 5천원), 조성용(1만4천원) 강순도, 강관입, 김순이, 길  
 언년, 유경자, 임봉희, 전길남, 최동배, 최순자(각 1만  
 원) 한영순(9천원), 강대안, 강삼식, 소준영, 육인녀,  
 이경화, 장금용, 최복례(각 5천원), 소인규, 양광식(각  
 4천원) 정원섭(3천5백원) 박춘근(3천원) 김부자(2천5백  
 원), 노영희(2천1백원) 강한례, 김복례, 김분다, 김수철  
 박강용, 박태우, 박정숙, 송한례, 신선희, 이분례, 전창  
 환, 정무능, 최금연, 최인화, 최형(각2천원), 백복희,  
 임종섭(각1천5백원), 김순자, 김연순, 김오목, 노계순,  
 문형주, 박금순, 박태수, 배금순, 백옥님, 설상환, 양기  
 순, 오인순, 이덕수, 이명순, 이복님, 이분녀, 이양순,  
 이원희, 이재진, 정용녀, 채삼순(각1천원), 손경님(6백  
 원), 강순열, 김발라바, 김복순, 김선옥, 박인철, 변귀  
 순, 양모임, 이금옥, 정기범, 한완남(각 5백원), 박순자  
 이남순(각2백원), 백남호(50원)

#### 인후동

이관섭(2만원), 박성규(1만5천원), 이재열, 전옥진  
 (각1만원) 고여옥, 김기동, 문복례, 백선희, 이강영,  
 최학용(각5천원) 김순례, 최백순(각4천원), 김인수(3천  
 5백원) 고영화, 김순복, 박양금, 윤길남, 정금순(각 3천  
 원) 김은택, 이성녀, 이결례(각2천원) 함임순(1천5백원)  
 강백순, 강순향, 김중관, 김현자, 박주원, 오형도, 이강  
 순, 이만석, 최복례, 한선희(각1천원), 홍일순(800원)김  
 영님(7백원) 강윤부, 백복선, 손도로로사, 양옥자, 유옥  
 순, 이순애, 조정순, 채부덕, 한기모(각5백원), 송양숙  
 장영희(각3백원), 김성녀(2백원)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숙  
 일체 구비

###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② 6691 교환85 번)

선물용 케익과 빵, 파자, 찰싹떡 준비!

### 프 랑 스 제과

### \* 임 금 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찻집 ⑤5013  
 김 원 준(야고버)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찰싹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 미 미 제과

상업은행 옆 (②6589)

미미 사진관  
 미미 예식장  
 남문 옆 (②3915)  
 김 민주(가타리나)



■ 양 지 쪽 ■



『웃기네』의 애화(哀話)

월남전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 조국이 전화에 찢어지는 것만큼 이별에 가슴을 때운 사연이 있었다. 표령의 한 꿈꾸이(아가씨)가 장병들의 귀국 승선이 가마득히 멀어져갈 때 까지 「웃기네...웃기네...」하고 애담게 손수건을 적시며 울고 있었다. 사연인즉 국적을 조월하여, 사랑해 주던(?)병사가 주고간 마지막 선물이란다. 이 아가씨 병사가 귀국할 때 같이 한국에 귀국하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때 병사는 「웃기네, 웃기네...」로 가볍게 응수했다. 병사에게 그 뜻을 물은즉 한국말로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다. 꿈꾸이는 자기 사랑의 표현을 가눌 길 없어 「웃기네, 웃기네」하고 흐느꼈다. 한 여인에게 전쟁의 상처라고 일축하기엔 너무도 처절한 상흔(傷痕)의 일화이다.

요즘 「웃기네」란 말은 사실 무근한 말을 진심인 양 위장할 때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쓰여지는 속어이다. 「너를 믿어」 혹은 「사랑해」 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웃기네」하면 「거짓말 마시지, 믿지않으니」라고 하는 말이다.

「누구 누구는 천주교 신자라면서 그 모양이야」 혹은 「무슨 무슨 직책이 있는 인격의 소유자라는 데 그분이 설마...」하고 인물평을 하면 「웃기네...그런 사람도 신자가 될 수 있나?」하고 힐난한다. 문제는 신자생활을 잘 하지 않는 데서 나온 신앙의 무용론 운운이다.

사람은 자기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아름답게 보인다. 「하는체」하면 할 수록 참모습은 독선과 위선으로 흐려진다. 신앙생활도 믿음의 기쁨과 내적 충실함 없이 형식과 권위와 거짓으로 호도된다면 회절한 무덤이요, 양의 탈을 쓴 신앙의 생활이 된다.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의 생활이요, 과감한 현실 참여의 소금이요, 진실한 행동의 표현이어야 한다. 만일 자기의 참모습을 남이나 하느님께 보여 주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공염불의 신자에 불과하다. 공염불의 신자야말로 「웃기네」 신자이다. 만일 사회가 교회를 보고 「웃기네」한다면 빛과 소금의 기능은 버려야 할 구차한 쓰레기의 운명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도 행여 「웃기네」 신자가 아니었던가? (건)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③3498)

- 매주 월, 수, 목요일 7시30분...일본어 교실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독서이다 T.2~7398  
 \*성 바오로 서원

\* 이 주간의 성경 \*

- 11(월) 루르드의 성모  
 독서(히브리 1:5-14, 성서 P.496)  
 복음(마르코 6:53-56, 성서 P.90)
- 12(화) 독서(히브리 2:1-4, 성서 P.497)  
 복음(마르코 7:1-13, 성서 P.91)
- 13(수) 독서(히브리 2:5-9, 성서 P.497)  
 복음(마르코 7:14-23, 성서 P.91)
- 14(목) 성 치릴로 수도사와 성 메토디오 주교기념  
 독서(사도행전 13:46-49, 성서 P.298)  
 복음(루가 10:1-9, 성서 P.154)
- 15(금) 독서(히브리 2:10-18, 성서 P.498)  
 복음(마르코 7:31-37, 성서 P.92)
- 16(토) 성모 기념  
 독서(히브리 3:7-19, 성서 P.499)  
 복음(마르코 8:1-10, 성서 P.93)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임한진 애견)  
 문의처: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골)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③4577)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소]

[식]

1. 새꾸르실리스타 34명 탄생  
제 7차 꾸르실리스타는 34명의 새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하여, 이제 본 교구에는 226명의 평신도 꾸르실리스타(1명 사망)와 32명의 성직자 꾸르실리스타(1명 사망)가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인 성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 J.O.C 투사 연수회 및 임시 총회 (오늘 10시~오후 5시, 가톨릭 센터)  
오후 1시부터 간담회가 있으니 전에 활동하신 회원님들과 선배 투사님들의 참석을 요망합니다.
3. 말씀의 광장 (18일<월>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주제: 학생과 교회, 연사: 문정현 신부, 조 성호 선생, 김 재덕 주교
4. 메아리 합창단 모집 (연습: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보좌 신부 박창신  
사도 회장 이복석

1. 신용조합 정기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1) 사업보고, 사업계획, 예산승인.  
(2) 시장 및 기념품 증정 (3) 복권 추첨  
(4) 점심 제공  
※ 신용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생활을 돕고 향상시켜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2. 주일학교 졸업 및 종업식 (오늘 공식 미사후)
3. 주일학교 개교 및 예비신자 교리 개강 (3월부터)  
예비교우의 등록은 사무실에서 접수함
4. 성모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5. 감사합니다. 금양동 김마리아씨가 애령회를 위하여 5,000원을 회사 하셨습니다.
6. 주일금 배가운동 물가의 폭등으로 인한 유지비 부족을 고려해서 주일금의 배가운동을 펼칩니다.
7. "출절이" (주보) 애호 경제사정으로 용지 구입이 막연하며 저대도 1장에 4원50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보는 1가정에 1장씩 가져 가시고 나머지는 "한"에 넣어 두십시오.  
□지난 주일 봉헌금 42,332원, 감사합니다.  
주일금 배가운동에 협조를 바랍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1. 예비신자 교리(주일 10시미사후, 화요일 저녁 7시)
2. 재속 형제회 주회 (12일<화>부터)  
각 팀 주회를 시작하니 해당구역 전원 참석 바람.
3. 부녀부 월례회 (다음주일)
4.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① 임원회(다음주일) ②정기총회(3월3일, 임원개선)
5. 새해 구역 반상회 미사일정(저녁 7시)  
① 중노 1가동 박병지가(구선)회장 구역  
11일(월) 노아가다(계순)  
12일(화) 백안나(옥년), 최아가다(금연)  
② 인후동 1가 이요셉(재열)회장 구역  
13일(수)정 바올라(금순), 15일(금) 권베드로(옥진)  
14일(목) 송 마가리오(봉운), 16일(토)김 비리시라(순애)
6. 본당 신축기공식 (3월19일)에 협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신축 성미 4말 (누계 131말)  
지난 주일 봉헌금 15,26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구역장, 반장, 사도회 임원 합동회의 (12일<화> 오후 7시반)
2. 주일학교 교리 (다음주일 오후 2시부터)  
※ 아동 미사 매주일 오후 4시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4. L.M. 단장 부단장회의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5. 나춘성, 광주 대건 신학대학 2등 합격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애프터미션에 협조해주시어 감사합니다(목표액 7만원)  
① 완남...본당 신부님(1만원), 최완규(5천원), 푸른양지회(2천원), 김동천(1천5백원), 교리교사회(1천원), 김정규, 이재규(각5백원) 계 20,500원  
② 신입...본당 소속 해성교사(1만원), 조준석(3천원), 박동규, 정복숙, 문제원, 송정원(각 1천원), 김인철, 노남식, 최덕배(각5백원) 계 18,500원  
③ 부족한 31,000원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6,695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예비 신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후, 수요일 저녁 미사후)
2. 새 꾸르실리스타 1명(최용구) 탄생~축하합니다
3. 성우회 (오늘 공식 미사후)
4. 성당 청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희생과 보속, 속죄의 뜻으로 공을 세우십시오  
※ 지난 주일 미사 참례자(10시~361명, 7시~115명, 계 476명)  
□지난 주일 성미 2말 5되 (누계 248말 9되)  
지난 주일 봉헌금 15,02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무사히 마친 피정 (2~3일) 천주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 박진량 신부님, 안지은 선생님, 감사 드립니다
2. 상판성당 피정 실시 (11일<월>) 감사: 박진량 신부)
3. 가정방문 실시 (13일<수>~16일<토>)  
1~4반 방문. 구역장 및 반장은 대기 바람
4.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5. 신용조합 강습 (11일<월>~12일<화> 저녁미사후)  
감사 지정환 신부님  
조합원과 준조합원 등 조합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분의 청가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12,537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후, 저녁미사후)
2. 성심유치 원아모집 (25일까지)
3. 자모회 월례회 (공식미사후)
4. 가정방문 기도 일정  
12일(화).....전동. 다가동  
13일(수).....중앙동. 경원동  
14일(목).....동완산 (최기영. 권행자. 강복남 구역)  
15일(금).....동완산동 (유기남. 조재복 구역)
5. 교리반 소식  
① 주일학교 졸업식 및 종업식(2월17일)  
② 초, 중고등학교 교리반 개학(2월10일)  
③ 교리교사들이 선택한 학습교재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 요망(어린이 성서 교리 신, 구역)
6. 대건 신용조합 정기총회 (2월14일 오후 7. 30분)  
각 조합원은 성원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불참시엔 위임장 보내주세요
7. 애령회 소식(전월 잔액 37,532원)  
금월 수입 8,230원 지출10,656원 잔액 35,106원  
(교우 사망 3건 3,000원지출 적금 200,000원 7,656원 지출)  
애령회 특별헌금 있음. 많은 협조 요망.  
□지난 주일 헌금 35,612원 감사합니다.